

--	--	--	--	--

Centre Number

--	--	--	--	--	--	--	--	--	--

Student Number

**2008**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 Korean Background Speakers

## General Instructions

- Reading time – 10 minutes
- Working time – 2 hours and 50 minutes
- Write using black or blue pen
- Monolingual and/or bilingual print dictionaries may be used
- Write your Centre Number and Student Number at the top of this page and page 7

## Total marks – 100

### Section I Pages 2–5

#### 20 marks

This section has two parts, Part A and Part B

- This section should take approximately 50 minutes

Part A – 10 marks

- Attempt Question 1

Part B – 10 marks

- Attempt Question 2

### Section II Pages 7–17

#### 55 marks

This section has two parts, Part A and Part B

Part A – 40 marks

- Attempt Questions 3–4
- Allow about 1 hour for this part

Part B – 15 marks

- Attempt Question 5
- Allow about 30 minutes for this part

### Section III Page 18

#### 25 marks

- Attempt ONE question from Questions 6–8
- Allow about 30 minutes for this section

##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20 marks

This section should take approximately 50 minutes

### Part A – 10 marks

#### Attempt Question 1

You will hear ONE text. The text will be read twice. There will be a two-minute pause after the first reading in which you may make notes. However, you may make notes at any time. After the second reading you will have 12 minutes to answer Question 1. Write your answers in ENGLISH in the spaces provided. In the case of multiple-choice questions, tick the box that corresponds to the correct response. There will be a warning after 10 minutes to indicate that you have two minutes left to complete your answers.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identify the main points and detailed items of specific information
- analyse the way in which language is used to convey meaning

당신은 한 개의 텍스트를 듣게 됩니다. 이 텍스트는 두 번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듣기가 끝난 후 주어진 공간(노트)에 메모를 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라도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듣기가 끝난 후 문제 1에 답하기 위해서 12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답은 주어진 답란에 영어로 쓰시오.

사지선다형 문제의 경우 맞는 답에 해당하는 □란에 '✓' 표 하시오.

10분이 경과한 후 2분이 남아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답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내용들과 특정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잘 구분되고 있는가
- 의미 전달을 위해 언어가 사용된 방법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

	Marks	Candidate's Notes
<b>Question 1 (10 marks)</b>		
대화의 끝부분을 듣고 생각나는 가장 적당한 속담을 고르시오.  After hearing the conversation, choose the most appropriate Korean proverb from the last part of the conversation.	1	
(A)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input type="checkbox"/>	
(B)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 The boughs that bear most hang lowest.	<input type="checkbox"/>	
(C)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Do not know A from B.	<input type="checkbox"/>	
(D)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Pour oil on the flame.	<input type="checkbox"/>	

Question 1 continues on page 3

Question 1 (continued)	Marks	Candidate's Notes
<p data-bbox="255 291 1085 380">대화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홍규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시오.</p> <p data-bbox="255 414 1085 459">Explain Hongkyu's emotions by referring to the conversation.</p> <p data-bbox="255 492 1085 784">..... ..... ..... ..... .....</p>	2	
<p data-bbox="180 828 1085 873">(c) 대화에서 언급된 사회적 이슈 두 가지를 설명해 보시오.</p> <p data-bbox="255 907 1085 985">Describe at least TWO social issues mentioned in the conversation.</p> <p data-bbox="255 1019 1085 1310">..... ..... ..... ..... .....</p>	2	

**Question 1 continues on page 4**

Question 1 (continued)

Marks

Candidate's  
Notes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 이민에 대한 견해를 쓰시오.

5

How does this conversation reflect different views towards emigration in Korean society today?

.....

.....

.....

.....

.....

.....

.....

.....

.....

.....

.....

.....

.....

.....

.....

**End of Question 1**

## Korean Background Speakers

### Section I (continued)

#### Part B – 10 marks

#### Attempt Question 2

You will hear TWO texts. The texts will be read twice. There will be a two-minute pause after the first reading of the texts in which you may make notes. However, you may make notes at any time. After the second reading of the texts you will have 20 minutes to answer Question 2. Write your answer in KOREAN in a writing booklet. Extra writing booklets are available. There will be a warning after 18 minutes to indicate that you have two minutes left to complete your answer. You may proceed to Section II as soon as you have finished Question 2.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compare and contrast information, opinions and ideas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 convey information and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

당신은 두 개의 녹음된 텍스트를 듣게 됩니다. 두 텍스트는 각각 두 번씩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듣기가 끝난 후 메모를 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라도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듣기가 끝나면 질문 2에 대한 답안 작성을 위한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답은 따로 주어진 답안지에 한국어로 쓰시오. 답안지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제공됩니다.

18분이 지난 후 2분이 남았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문제 2를 끝낸 후에 바로 Section II로 가십시오.

당신의 답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어진 정보나 의견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얼마나 잘 평가, 비교, 대조하고 있는가
- 텍스트를 참조, 활용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고 적합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 Question 2 (10 marks)

방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을 150–200단어의 한국어로 작성하십시오.

You are giving a speech to par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eenagers. Based on the content of the texts you have heard, write a speech on 'How to overcome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in 150–200 words in KOREAN.

**You may now proceed to Section II**

BLANK PAGE

Korean Background Speakers

--	--	--	--	--

Centre Number

Section II — Reading and Responding  
55 marks

--	--	--	--	--	--	--	--	--

Student Number

Part A – 40 marks

Attempt Questions 3–4

Allow about 1 hour for this part

Read the text and answer Question 3 i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the spaces provided.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identify and analyse specific information
- analyse the way in which language is used to convey meaning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다음의 텍스트를 읽고 문제 3에 대한 답을 주어진 답란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시오.

당신의 답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한 정보를 얼마나 잘 구분하며 분석하고 있는가
- 의미전달을 위해 언어가 사용된 방법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
- 텍스트를 참조, 활용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Question 3 (15 marks)

Please turn over

Question 3 (15 marks)

이애, 원한다면 까짓 것! <sup>㉠</sup>자객이 되거라. 네가 되고 싶다는, 만화 속의 그 자객이. 가끔 생각하지. 어떤 때는 괴괴한 달빛 속을 소리 없이 걸어 아무도 넘지 못하는 담을 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는 너의 가볍고 경쾌한 발자국 소리가 달빛에 묻어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다. 네가 자객이라면 너의 무기는 어떤 것일까? 아무리 그리고 또 그려 보아야 흰 달무리 밑의 광야에 서서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너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무기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야광빛을 발하는 작은 장난감 막대기 같은 것일까. 너의 눈빛 같은 것. 너무 맑아 초록의 빛을 발하는 그런 눈빛 말이지. 그래, 너의 무기는 그런 날없는 무엇이어야 하겠다. 빛이나 공기 같은 것. 만져지지 않지만 누구나 그 앞에서 멈칫하고 사방을 다시 한 번 둘러보게 하는 것. 그래, 이애 그렇다면 너는 만화 속의 그 나이 어린 자객이 되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일 앞에 네가 설 수 있다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 위를 지나간다면.

이애, 담배나 한 대 피자꾸나. 약간의 연기는 뱃속을 소독시켜주지. 안개가 그렇듯이. 노을빛이 그렇듯이. 저 앞의 숲을 보거라. 아, 그 황량하던 가시덤불이 왜 이리 그리우냐. 다 일없다. 해질녘의 호수를 둘러싼 숲 가에 오랫동안 앉아 본 사람은 알지. 낮과 저녁이, 물과 하늘이, 말과 말의 경계가 어떤 순간 흐려져 버리는 것을. 바로 그 경계가 흐려지는 곳. 세상에서 가장 <sup>㉡</sup>아름다운 풍경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면 눈물이 나온다. 왜일까. 너 때문일까. 어떤 눈물도 순수하지 않더라. 기쁨 속에 슬픔이 녹아 있고 또 지극한 슬픔은 꼭 자그마하나 어떤 행복에의 기대를 가져다 주니 말이다. 그래서 눈물은 마약과 같은 거야. 제때에 흐르지 않으면 저 깊은 존재의 밑바닥에 숨은 경련을 일으키거든. 이애, 숨어서 우는 사람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하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의 눈물.

Question 3 continues on page 9

Question 3 (continued)

㉔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영킨 아재비의 모습이였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의 모습이 제일 ㉔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말이 많았을까.

홀홀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하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재비의 공책에는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는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쨌든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Question 3 continues on page 10

Question 3 (continued)

㉠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송이가 딸에게 자객이 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2

Why did Songhi ask her daughter to become an assassin in ㉠?

.....  
.....  
.....  
.....  
.....

이 글 속에 나타난 ㉡의 아름다움과 ㉢의 아름다움은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3

The implied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 'beauty' in ㉡ and ㉢ is the same in this passage. What is the meaning?

.....  
.....  
.....  
.....  
.....  
.....

Question 3 continues on page 11

Question 3 (continued)

작가는 작품 전체를 통하여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들을 분석해 보세요.

5

The author uses a variety of methods to reveal the theme of the story.

Analyse the methods used.

.....

.....

.....

.....

.....

.....

.....

.....

.....

.....

.....

.....

.....

.....

.....

.....

Question 3 continues on page 12

Question 3 (continued)

이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 갈등에 대하여 아재비의 삶을 중심으로 설명 하시오.

5

How does this story explore the conflict in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life of Ajaebi?

.....

.....

.....

.....

.....

.....

.....

.....

.....

.....

.....

.....

.....

.....

.....

End of Question 3

BLANK PAGE

BLANK PAGE

## Korean Background Speakers

### Section II – Part A (continued)

Answer Question 4 i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a SEPARATE writing booklet. Extra writing booklets are available.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analyse features of text
- analyse the relationship of text to the prescribed theme
- analyse the way in which language is used to convey meaning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문제 4에 대한 답을 따로 주어진 답안지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시오. 답안지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제공됩니다.

당신의 답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텍스트의 특징을 얼마나 잘 분석하였는가
- 주어진 주제(theme)와 텍스트와의 관계가 잘 분석되고 있는가
- 의미전달을 위해 언어가 사용된 방법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
- 텍스트를 참조, 활용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 Question 4 (25 marks)

시 '성북동 비둘기'와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에 등장하는 비둘기와 (외판원) 아저씨의 삶을 비교 분석 하시오. 250–300단어의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시오.

Compare and analyse the life of the pigeon in the poem *Pigeon in Seongbookdong* and the Ajercci in the novel *1964, Winter in Seoul*. Write 250–300 words in either KOREAN or ENGLISH.

## Section II (continued)

### Part B – 15 marks

#### Attempt Question 5

Allow about 30 minutes for this part

Answer Question 5 in KOREAN in a SEPARATE writing booklet. Extra writing booklets are available.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exchange information in response to opinions, ideas and information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 convey information, opinions and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

문제 5에 대한 답을 따로 주어진 답안지에 한국어로 쓰시오. 답안지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제공됩니다.

당신의 답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텍스트에 제시된 의견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정보 등에 근거한 정보교환이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는가
- 텍스트를 참조, 활용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 정보와 의견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고 적합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 Question 5 (15 marks)

‘똥똥한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는 사실을 읽고, 당신의 견해를 적은 편지를 신문 편집자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250–300단어의 한국어로 쓰시오.

Question 5 continues on page 17

Question 5 (continued)

**뚱뚱한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비용목적의 치료방법이 아니라면 비만 치료는 질병치료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비만도 질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러나 비만이 질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만은 흡연이나 음주처럼 선택의 결과이고, 식습관이나 운동여부등 생활방식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만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비만을 더 이상 개인책임에만 묶어두지 않고 사회적 질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석하면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 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많은 질병이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비만인은 여러 합병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비만치료에 들어간 진료비와 병원을 드나드는데 따른 소득 손실액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비만인구 비율이 3.2%라고 발표했고, 1위인 미국의 30.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구식 식생활이 증가하면서 매년 40만 명 이상의 비만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60%이상이 비만인 호주에서도 해마다 A\$200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체중감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70%가량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의사를 찾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비만관련 질병예방을 위해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와 단맛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습관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할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End of Question 5**

**Please turn over**

## Section III — Writing in Korean

**25 marks**

**Attempt ONE question from Questions 6–8**

**Allow about 30 minutes for this section**

Answer the question in KOREAN in a SEPARATE writing booklet. Extra writing booklets are available.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write text appropriate to context, purpose and audience
- sequence and structure information and ideas
- demonstrate a range and control of language structures and vocabulary
- maintain reader interest

문제에 대한 답을 따로 주어진 답안지에 쓰시오. 답안지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제공됩니다.

당신의 답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어진 문맥(상황), 목적, 그리고 독자(청중)에 얼마나 잘 맞게 쓰여진 글인가
- 정보와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구성 되어 있는가
-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과 어휘력이 충분히 발휘되었는가
- 독자(청중)의 흥미를 유지 시키고 있는가

주어진 문제중에서 하나를 제목으로 선택하여, 학교 신문에 실을 사설을 300–350단어의 한국어로 쓰세요.

**Question 6 (25 marks)**

건전한 사이버 통신문화

**OR**

**Question 7 (25 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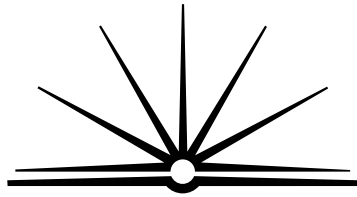
여성 리더의 현재와 미래

**OR**

**Question 8 (25 marks)**

남북한 언어 차이

**End of paper**



**B O A R D O F S T U D I E S**  
NEW SOUTH WALES

**2008**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 **Korean Background Speak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and Part B)**

## **Transcript**

### Familiarisation Text

기자: 이러한 채팅 언어의 사용을 십대의 문화 현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 채팅 언어 때문에 세대 간에 대화가 잘 안되고 또 채팅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 Part A

#### Question 1

예슬: 야, 진호야

너 괜찮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호: 응, 아무것도 아냐.

예슬: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니?

야, 이 누나한테 얘기해봐. 니가 나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니?

진호: 누나 좋아하네. 자꾸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생색은.

예슬: 야 한 달이면 30일에다 720시간 17280초 라구 거저가 아니라고.

진호: 또 시작이다. 지금은 받아 줄 기분이 아니거든. 그만해.

사실은 우리 아빠가 이민가제.

예슬: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거겠지.

'사오정'이다. '오륙도'라 해서 40대 50대 분들이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겠지. 우리 아빠도 회사에서 힘들다고 "우리도 이민이나 갈까"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적이 있어.

진호: 아니 근데 사오정, 오륙도가 무슨 뜻인데?

예슬: 너의 그 영원한 무지의 소치를 이 누나가 어찌 하오리까?

너 그것도 모르니. 사오정은 45세가 청년이란 뜻이고, 오륙도는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란 뜻이잖아. 그만큼 나이 들수록 직장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진호: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 아빠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었나봐. 이민 상담을 비롯해 벌써 수속까지 다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내가 대학 못 가는 꼴을 볼 수 없으시데.

예슬: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말씀 드려봐. 너도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뭐 니 동생이야 초등학생이니 별 탈 없이 적응하겠지만.

야, 그리고 넌 여기서도 공부하고 담쌓고 지내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뭐 안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서는 안 샌다니.

진호: 그러게 말야. 난 이대호가 좋다고. 공부 못 해서 대학 못 가면 어때. 전문대 가면 되지. 그리고 흥규하고 너, 내 친구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요.

예슬: 근데 흥규한테는 얘기 했니? 흥규가 실망이 굉장히 클텐데. 너희는 10년 넘은 '죽마고우'잖아.

진호: 얘기 했지. 그랬더니, 나 보고 '매국노'래. 국가를 배신하고 딴 나라로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군대 간다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몰래 미국 시민권 받은 유승준과 다를바가 없다나. 비유 끝내주지? 미국 원정 출산 얘기도 길게 늘어 놓더라고.

예슬: 그러게. 흥규가 충격이 컷 던가 보구나. 그래서 연락을 딱 끊었나?

어머, 너 그러고 보니 좋은게 한 두 가지가 아니네. 진호 너 참 좋겠다.

진호: 위로는 못 해 줄망정 너 마저 약 올리냐? 난 지금 심각하다고.

##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 Part B

#### Question 2, Text 1

<군함처럼 큰 신발에 허리띠를 엉덩이에 매고 긴 바지 자락으로 땅바닥을 쓸고 다니는 아이들, 운동장에 버려진 휴지를 주으라 하면 "제가 안 버렸는데요"라고 꿈무니를 빼는 아이들. "장차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물으면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꿈이 없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입을 딱 다물면서, 남이 발표를 하면 잘난 체한다고 비아냥 거리는 비겁한 아이들. "니가 반장이냐?"고 물으면 "그런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불확실한 아이들>

어른들의 눈에 비친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버릇없고 끈기 없으며, 사리판단에 미숙하고, 세상물정 모르고 나약하다고 비난한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이렇다.

<잘못이 확실한데도 체면 때문에 인정 못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사는 통에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는 이중인격자.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콘크리트 같은 사고의 소유자. 시대변화에 적응 못하는 걱정이 팔자인 세대>

크게 보자면 다 부모요 자식인데, 한 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어야 할 두 세대가 어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이며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 느끼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대해 미리 담을 쌓고 지낸다. 반면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 대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두 세대는 서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차이 혹은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심리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극히 사소한 데에 있지 생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등 거창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은 어느 한 세대의 힘만으로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 Part B

#### Question 2, Text 2

기자: 안녕하세요? 청소년 잡지 '푸른시대'에서 나온 이상민 기잡니다. 어른들이 느끼시는 세대차이에 대해 정리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어른들은 학생들이 자유분방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학생: 네,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해졌어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고 들려주셔도 재미없으면 분위기'떨렁'하죠. 저희들은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살아요.

기자: 그런 점들이 신선하고 귀여운 한편 예의를 너무 모르는 것같아 염려스럽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신세대의 단점은 뭔가요?

학생: 우리세대의 단점? 글썄요. 구태여 고른다면 뒤를 생각 안하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는 거. 하지만 차라리 저희가 기성세대보다 낫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도 잘못을 하고 나면 모든걸 인정하기라도 하잖아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은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겉으로는 뻔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기자: 어른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염려하시던데?

학생: 자기 행동을 책임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개인주의가 뭐가 나쁘죠? 개인주의가 아니라면 사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쟁취를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개인주의'를 탓할 수 있을까요?

기자: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매우 심각해졌네요. 그럼 청소년들과의 세대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 제가 아는 어른 중에 자기주장이 아주 뚜렷한 분이 계세요.

다른 의견을 한 마디라도 하면 막 화가 나서 어쩔줄을 모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 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자: 문제는 대화단절로 인한 사고방식의 차이인데.....기성세대한테는 이런 고민도 있는 거 같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거나, 유행어, 인기 연예인을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유들이 세대간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닐까요.

학생: 그런 거 아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세대차이가 없어지나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